

전문가 칼럼

기업윤리의 날을 시행함으로써 얻을 수 있는 효과



강태현 변호사 (법무법인 한결)

Q. 기업이 윤리의 날을 시행하면 기업 내외부적으로 어떤 효과가 있을까요?

기업은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조직체이지만, 이익 추구에는 한계가 있다. 법률과 윤리가 그것이다. 법률과 윤리 사이에는 미묘한 차이가 있다. 법률은 영리 추구에 일정한 한계선을 그어 놓지만, 윤리는 영리 추구에 품격을 더하는 세련된 효과를 낳는다. 그러한 세련된 방법 중의 하나가 윤리의 날을 시행하는 것이다. 이는 여러 모로 기업에게 이익을 가져다 줄 수 있다.

첫째, 직원들에게 자긍심을 심어준다. 직원들이 스스로 칭찬하는 회사는 펀더멘탈(Fundamental)이 튼튼하고, 높은 급여를 지급하지 않아도 우수한 인력을 유지할 수 있다.

둘째, 기업 내부의 사고를 예방함으로써 비용을 절감할 수 있고, 직원들이 업무용 물품 등을 개인적으로 사용하는 경우와 출장비, 회식비를 과다 사용하는 경우를 막을 수 있다.

셋째, 소비자들의 신뢰를 얻을 수 있다. 소비자의 신뢰를 얻는 기업은 가격, 품질의 열위에 있더라도 경쟁사를 제압할 수 있다.

물론, 윤리의 날이 또 하나의 요식행위에 그쳐서는 위와 같은 효과를 얻을 수 없다. 누가 보더라도 마음에서 우러나는 행사로 가져가야 한다. 이러한 실질적인 행사가 몇 년 반복되면 기업의 내·외부 평판은 한층 높아질 것이다.

Q. 우리사회에 윤리문화를 확산시키기 위해 기업들은 어떤 노력을 할 수 있을까요?

윤리는 사람과 사람 사이의 관계에서 드러난다. 기업윤리도 마찬가지이다. 기업윤리는 기업과 임직원, 기업과 소비자, 기업과 협력업체 등의 관계에서 드러난다.

'기업과 임직원' 사이를 보자. 임직원이 회사 내에서 서로 존중하게 하는 것이 첫걸음이다. 그리고 직원이 일과 가정을 병행할 수 있도록 경영자가 고민하는 것도 그 중 하나이다.

'기업과 협력업체' 사이를 보자. 우수한 협력업체는 기업의 경쟁력에 큰 몫을 차지할 뿐만 아니라, 기업의 위기 시에 버팀목 역할을 한다. 이러한 협력업체를 유지하려면 협력업체를 존중하는 인간적 접근이 필요하다. 그리고 협력업체와 뇌물, 비자금 발생하지 않도록 교육과 내부제보에 신경 써야한다.

'기업과 소비자' 사이에서는 지속적으로 기업의 윤리적 실천을 보여주는 것이 좋다. 빈곤층에게 연탄을 지급하는 행사를 계획한다면, 1년에 한 번 하는 행사보다는 전 직원이 릴레이 방식으로 하는 행사가 더 효과적일 수 있다.

우리 사회에 윤리문화를 확산시키기 위해 기업들이 어떤 노력을 할 수 있을지를 고민하고 있다면, 기업의 가장 가까운 곳에서부터 차근차근 윤리문화를 실천해 나가도록 하자.

윤리경영 사례

기업윤리의 날을 운영하는 기업들

기업윤리 주간을 맞이하여 기업들이 윤리의 날을 어떻게 운영하고 있는지 일부 사례를 소개하고자 한다.

◎ 현대글로벌비스

현대글로벌비스는 현대자동차 그룹의 종합물류유통 전문기업으로 2001년 창사 이래 외형과 내실 모두 괄목할만한 성장을 이루었고, 내부 직원 윤리경영과 외부 협력사 상생경영을 적극적으로 실천하고 있다.

현대글로벌비스는 윤리가 연상되는 6월 2일을 '윤리의 날'로 제정하고, 사업 및 관리 주요 부서 과장급 이상 직원으로 구성된 윤리경영리더 협의체를 운영하여 교육/홍보/시스템 분과별로 다양한 윤리실천 프로그램을 실시하고 있다.

특히, 현대글로벌비스는 임직원들의 자발적인 참여를 통해 '생활 속의 윤리'를 실천하고 있다. 현대글로벌비스는 사내 공모를 통해 선정된 '마음 속 윤리의식, 행동 속 윤리실천' 표어가 새겨진 마우스 패드와 윤리 화분을 배포하고, 사무실 주변에 윤리경영 포스터를 부착하여 윤리경영을 기업문화로 정착하고 있다. 모든 임직원은 매년 '윤리의 날'에 윤리실천 서약을 다시 하고, 서약서를 책상 앞에 부착하여 실천 의지를 함양하고 있다. 또한, 업무 시스템 접속 시 e-Clean 교육을 반드시 이수해야 한다. 현대글로벌비스는 온라인 교육 외에 전 직원을 대상으로 윤리경영 특강을 실시하고, 신규 입사자와 해외 주재원 등 분야별 직무 교육에 윤리경영을 필수과목으로 운영하고 있다.

현대글로벌비스는 윤리경영 홈페이지를 별도로 구축하여 윤리적 딜레마 문제에 대한 고충을 접수하는 윤리경영 Help Line, 거래업체로부터 금품이나 선물을 받았을 경우 신고하는 클린노티스 시스템, 비윤리 행위를 신고하는 사이버 감사실 등을 운영하고 있다. 이러한 윤리경영 실천 활동은 현대글로벌비스가 자체적으로 발간하는 뉴스레터를 통해 전임직원에 홍보되고 있으며 윤리경영의 중요성을 재인식하는 메커니즘으로 선순환 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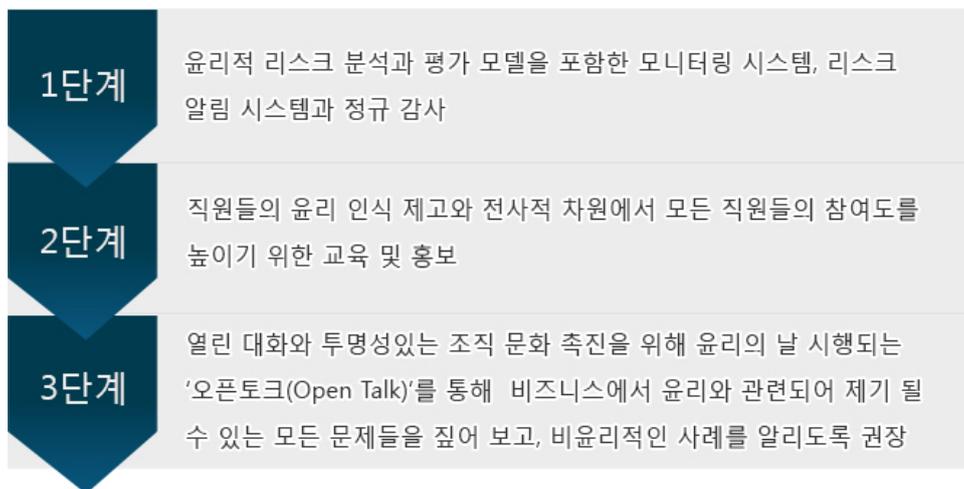


현대글로벌비스는 2015년 '윤리의 날'을 맞아 친환경 머그컵을 배포하여 종이컵 사용 줄이기를 실천하고, 임직원 모두가 함께 윤리연극을 관람할 계획이다. 또한, 현대글로벌비스는 협력업체에도 윤리경영 실천 프로그램 운영 노하우와 관련 교육을 지원하고, 입찰시 가산점을 주는 평가제도를 운영해 윤리경영과 상생경영의 조화도 목표로 하고 있다.

◎ 로레알그룹

1909년 설립되어 32개 인터내셔널 브랜드를 소유하고 있는 로레알그룹은 2007년부터 2015년까지 6회에 걸쳐 에티스피어 재단이 발표한 세계 최고 윤리기업에 선정되었다.

로레알그룹은 기업 내 윤리의 중요성을 상기 시키고 전 세계 모든 임직원들의 윤리적 활동을 장려하기 위해 2011년부터 모든 지사가 매년 같은 날 동시에 윤리의 날을 실시하고 있다. 이날 최고 경영자와 전 세계 직원들과의 실시간 웹채팅이 이루어지며, 로레알 각 지사의 대표와 로레알그룹의 최고 경영자가 직원들의 윤리 이슈 질문에 직접 대답하는 형식으로 진행된다. 임직원들은 평소 기업 윤리에 대해 궁금했던 점을 질문하거나 건의하고 싶은 내용에 대해 자유롭게 대화할 수 있다. 전 세계 73,000명의 직원 중 50% 이상이 웹채팅에 참여하고 있으며, 직원들은 윤리의 날 뿐 아니라, 각 나라의 윤리담당위원(Ethics Correspondent)을 통해 1년 365일 언제든지 기업 윤리에 관한 의견을 자유롭게 개진할 수 있다.



윤리 프로그램은 주요 장치를 기반으로 단계적으로 운영되고 있다. 윤리의 날에 이루어지는 최고경영자와의 웹채팅은 '오픈 토크' 정책의 일환으로 이루어지며 이는 로레알그룹 윤리프로그램의 마지막 단계인 3단계에 속한다. '오픈 토크' 정책을 통해 직원들이 의견을 자유롭게 개진하고 부조리한 요구와 행위를 보고하도록 장려하고 있으며 익명성 보장과 편리한 접근성을 위해 그룹 최고 윤리담당자에게 직접 연결이 가능한 별도의 '오픈 토크' 인터넷 사이트를 한국어, 영어, 스페인어, 힌두어, 아랍어 등 27개국어로 운영하고 있다. 또한 기업의 윤리적 행동이 경제성과 또는 제품 품질에 상응할 만큼 중요하다는 점을 인지하고 있으며, 세계적으로 윤리적 모범을 보이고 그룹의 모든 활동의 근간에 윤리를 통합하겠다는 사명감으로 업무를 추진하고 있다.

로레알그룹의 윤리 프로그램은 임직원들에 의해 자발적이고 주도적으로 이루어지고 있으며, 윤리 담당 위원들로 이뤄진 전문가들은 직원들의 일상적인 모든 업무에 윤리를 근간으로 세우기 위한 포괄적인 모니터링 시스템과 장치들을 적용하고 있다. 이미 10년 전부터 전문 분야를 강화하기 위해 비즈니스 윤리강령을 만들기 시작했으며, 윤리의 토대를 확실히 세우고, 윤리 전문성과 기준을 강화하기 위해 장치들을 계속해서 발전시키고 있다.

◎ 동아ST

2013년 설립된 동아쏘시오홀딩스그룹 계열의 의약품 제조업체인 동아ST는 전문의약품 등의 제조 및 판매 사업을 운영하고 있으며, 임직원의 준법정신과 윤리경영을 통하여 글로벌 제약기업으로 나아가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동아ST는 회사의 자율준수 실천에 대한 노력을 지속적으로 실시하기 위해 매년 4월 10일을 '자율준수의 날'로 정하여 윤리경영 문화를 사내에 정착시키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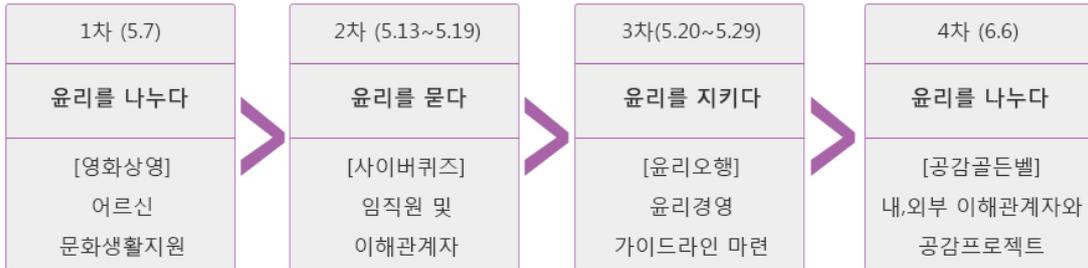
동아ST는 자율준수의 날을 맞이하여 자율준수서약서 제출, CP준수 인센티브 시상, 자율준수관리자 메시지가 담긴 포스터를 부착하는 등 사내에 윤리경영 문화를 정착시키기 위한 캠페인을 펼치고 있다. 이날 고객의 가치 존중과 관계의 유지 발전, 원칙과 법규 준수를 통한 윤리적 기업문화 정착 등의 세 가지 다짐을 제창하며, 그 내용이 반영된 '자율준수 서약서'를 자율준수 관리자에게 제출하고 공정거래 관련 법규 준수를 통한 업무 수행 등의 CP준수 의지를 다진다. 그리고 CP준수 우수지점·팀·PM등의 시상을 실시하여 CP 규정을 준수한 우수 임직원들에게 인센티브를 제공하고 있다. 또한 자율준수 관리자의 메시지를 포스터 형태로 제작해 지점 출입문, 게시판 등 전 부서에 부착하여 자율준수관리자 메시지를 통해 임직원 스스로가 CP준수에 대한 마음가짐을 바로잡고 업무에 임하도록 하고 있다.



◎ 한국가스안전공사

가스로 인한 위해 방지, 가스안전기술 개발, 사업의 체계적 추진을 통해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고자 1974년 설립된 한국가스안전공사는 윤리경영과 동반성장을 최우선의 가치로 내세우고 있다.

한국가스안전공사는 사내의 반부패 및 청렴에 대한 직원들의 자발적 참여 및 흥미를 유발하고 다양한 이벤트를 통해 사내윤리의식 강화와 청렴문화를 확산시키기 위해 매년 한 달(5~6월 중)의 기간 동안 'KGS 윤리청렴페스티벌'을 실시하고 있다. 또한 각 프로그램마다 외부 이해관계자의 참여를 장려하여 이해관계자와 소통의 장을 마련하고 상생협력을 통한 동반성장을 도모하여 청렴한 공사이미지 구축하고 있다.



KGS 윤리청렴페스티벌은 '윤리를 나누다', '윤리를 묻다', '윤리를 지키다', '윤리를 즐기다' 4가지 프로그램으로 나누어져 있다. '윤리를 나누다' 는 지역 어르신을 본사로 초청하여 영화 등 문화생활을 지원하는 프로그램이며, '윤리를 묻다'는 비정규직을 포함한 전 임직원과 외부 이해관계자가 함께 참여하는 퀴즈 프로그램이다. 외부 이해관계자를 대상으로는 SNS를 통해 해당 공사의 윤리경영 관련 성과와 관련한 문제를 출제하고 있고, 내부 임직원들을 대상으로는 행동강령과 윤리경영 전반에 대한 문제를 출제하고 있다. '윤리를 지키다'는 임직원들을 대상으로 자발적 윤리경영 가이드라인을 공모하는 프로그램이다. 임직원들이 직무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가치판단과 행동기준이 되는 지켜야할 일을 게시판에 댓글로 참여하게 하여 '윤리오행'을 선정하고 있다. '윤리를 즐기다' 프로그램에서는 전 임직원 및 이해관계자를 대상으로 'KGS 청렴 골든벨'을 시행한다. 이는 직원과 이해관계자가 2인 1조로 참가하여 임직원행동강령, 청렴관련 시사상식, 윤리경영실천규정에 관한 단답형 50문항을 푸는 프로그램으로, 이해관계자와 동반 참가시 패자부활전 및 찬스를 제공하여 이해관계자의 참여를 독려하는 등 내부와 외부의 공감을 장려하는 프로젝트이다.

이처럼 한국가스안전공사는 임직원과 이해관계자가 함께하는 윤리청렴 축제의 장 마련을 통해 상생협력을 통한 동반성장의 계기이자 청렴한 조직문화 공유의 좋은 기회를 마련하고 있으며, 윤리경영을 최고의 가치로 설정하고 지속적인 청렴의식 제고와 문화 확산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



◎ 대한지적공사

1938년 지적측량과 지적제도에 관한 연구·교육, 지적정보체계의 구축, 지적재조사 사업 등을 수행하기 위하여 설립된 대한지적공사는 윤리경영을 통한 사회적책임 강화를 위해 노력해오고 있다.

대한지적공사에서는 매월 4일을 'LX청렴의 날'로 정하여 청렴과 관련된 다양한 주제에 대해 토론하고 있다. 청렴토론을 통하여 직원 간 정보, 의견 등을 함께 나누고 공감하는 청렴문화를 만들고자 노력하고 있으며, 전 직원이 기관별로 청렴토론 실시 후 결과보고서를 사내 인트라넷(청렴충전소)에 등록하여 함께 공유하고 그 중 우수 아이디어와 사례를 선정하고 있다. 또 각 지역의 지사와 본부에서 월별과제에 따라 청렴토론을 실시하고 결과보고서를 취합하여 사내인트라넷 및 본사에 제출하면 본사에서는 이를 향후 정책방향에 참고하여 활용하고 있다.

<2015년 'LX청렴의 날' 월별 청렴토론 내용>

구분	토론내용
1월 과제1 인사청탁 금지	청렴 서약 실시 후 청렴 결의 대회 공정하고 투명한 임직원의 임용, 승진, 전보 방안
2월 과제2 청렴도 분석	2014년 공공기관 청렴도 결과분석 (내부청렴도 중심으로)
3월 과제3 예산의 목적외 사용금지	특근외식비, 여비의 위법 부당한 집행사례 (혹은 개선방안)
4월 과제4 예산의 목적외 사용금지	업무추진비의 효율적인 사용
5월 과제5 예산의 목적외 사용금지	업무용으로 지급된 물품 등 공사 재산의 효율적 사용 (업무용 차량 유지비 등)
6월 과제6 부당한 업무지시 금지	공정한 직무수행을 저해하는 지시에 대한 대응 전략 (업무의 본래 취지에맞지 않는 지시)
7월 과제7 부당한 업무지시 금지	공정한 직무수행을 저해하는 지시에 대한 대응 전략 (사적이익을 추구하는 지시)

동향&소식

동향 & 소식

국내 동향

국내 다국적기업들, 청탁금지법에 뜨거운 관심!



최근 국내 다국적기업들이 한국의 반부패 정책, 특히 최근 공포된 청탁금지법의 내용에 많은 관심을 보이고 있다.

미국상공회의소 윤리위원회는 3월 13일 곽진영 국민권익위 부패방지부위원장을 초청해 회원사 준법감시담당자 40여명을 대상으로 한국의 반부패정책과 청탁금지법에 대한 설명회를 개최하였다. 이날 행사에서는 '처벌에서 제외되는 경조사비의 범위', '한국의 문화·관습과 청탁금지법 간의 충돌 발생 우려' 등 회원사들의 많은 질의가 이어져 법 시행에 적극 대비하겠다는 다국적기업들의 의지를 확인할 수 있었다.

또한 5월 26일 IBM 협력사(삼성, LG 등) 준법감시 총괄 임원 50여명을 대상으로 한 IBM Integrity Summit에서도 곽진영 부위원장의 청탁금지법 소개에 이어 참석자들이 '형법 등 기존 법률과의 중복가능성'에 대해 질의하는 등 많은 기업들이 청탁금지법에 관심을 보였다.

UNGC Leaders Summit 2015 개최

'지속가능 발전 달성을 위한 기업의 참여'를 주제로 한 'UNGC Leaders Summit 2015'가 5월 19일 서울 여의도 콘래드호텔에서 열렸다. 400여명의 국내외 정부, 기업, 유엔, 학계대표 등이 참석한 이번 행사는 기업의 사회적 책임 등 지속가능성 이슈에 대한 기업의 인식제고와 확산을 목적으로 개최됐다. 반기문 유엔 사무총장은 기조연설자로 나서 "올해야말로 글로벌한 액션의 해"라면서 유엔이 올해 9월 채택할 예정인 지속가능발전목표(SDG)와 12월에 있을 기후변화 협약 회의의 중요성을 강조하였다. 이날 회의에서는 인권, 환경, 평화, 반부패 등 4가지 주제의 분과 세션도 이어졌다. 권익위는 반부패 분과세션을 주최하고 민간기업의 윤리경영에 대해 정부와 시민사회, 학계가 지원하는 방안을 논의했다. 이날 회의에서는 현대아산과 개성공단 입주기업 등 7개 기업이 참여한 가운데 유엔글로벌콤팩트의 '평화를 위한 기업활동'(B4P)의 한국 발족식도 진행되었다. 한국거래소의 '지속가능한 증권거래소 이니셔티브'(SSE) 가입식도 이어졌으며, 지속가능발전목표 실현을 위한 기업의 동참을 호소하는 내용의 유엔글로벌콤팩트 서울선언도 채택되었다.

출처: <http://www.yonhapnews.co.kr/bulletin/2015/05/13/0200000000AKR20150513136200003.HTML?input=1195m>

경상북도 '사회적기업 윤리경영 선포' 개최

경상북도는 안동 세계물포럼기념센터에서 도내 사회적기업 대표와 관계자 등 150여명을 대상으로 '사회적기업 윤리경영 선포식 및 사업개발비 지원 사업 설명회'를 개최했다. 이번 선포식은 전국 처음으로 사회적기업의 사회적 가치실현과 윤리경영 의지를 대내·외적으로 선언함으로써 사회적기업이 본연의 가치인 '좋은 물건을 만드는 착한 기업'으로 인식되길 희망하는 취지에서 열렸다. 이날 경상북도 사회적기업 대표는 "경상북도 사회적기업이 취약계층의 안정된 일자리 창출과 창의적이고 지속 가능한 성장 및 투명하고 공정한 윤리경영을 할 것"임을 선언했다. 한편, 경상북도에는 예비 사회적기업 76곳을 포함, 총 196개 사회적기업('15년 1월 기준)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도 사회적기업 경영분석결과에 따르면 이들 기업은 지난해 기업 당 평균 22.3명의 근로자를 고용하고 60%가 넘는 인원을 고령자, 장애인, 저소득층, 결혼이민자 등 취약계층으로 채용했다. 한해 약 30만명에 이르는 지역 주민들에게 사회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으며 이 중 9만 3천명은 무상 또는 크게 할인된 가격으로 혜택을 받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출처: <http://www.newsprime.co.kr/news/article.html?no=305601>

해외 동향

'대기업 갑질' 알고 보니 결국 손해로 돌아왔다

미국의 유명 자동차 메이커들이 협력업체들과의 관계 악화로 차 한 대당 144달러를 손해 봤다는 연구결과가 나왔다. 많은 대기업들이 부품업체에 '납품단가 후려치기' 등을 통해 수익성 개선을 시도하지만 결국은 '갑'질의 대가가 수익에도 마이너스(-) 요인으로 작용한다는 시사점을 던져주고 있다. 미국의 대기업-중소기업 상생 전문 연구조사기관인 플래닝 퍼스펙티브는 18일(현지시간) 연례보고서를 통해 포드, GM, 피아트 크라이슬러 등 미국의 자동차메이커들이 공급업체들과의 관계가 좋지 않아 금전적인 손해를 보고 있다고 지적했다. 또한, 플래닝 퍼스펙티브는 대기업과 부품업체들의 관계가 자동차 회사의 수익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연구했다. 그 결과 GM과 피아트 크라이슬러는 차 한 대당 144달러를 손해 봤다. 이 수치는 GM과 피아트 크라이슬러가 도요타와 혼다모터스 만큼 부품업체와의 관계를 개선했을 때를 가정해 추산한 수익을 지난 2014년 수익에서 뺀 방식으로 계산한 수치이다. 플래닝 퍼스펙티브는 보고서에서 "자동차 부품 공급업체들은 관계가 좋은 자동차 제조업체에 그들의 최신 기술을 제공하고 있었으며 그렇지 않을 경우 최신 기술을 제공받지 못해 경쟁도태와 매출감소라는 유·무형의 손실을 입는 것으로 조사됐다"고 설명했다. 존 헨커 주니어 플래닝 퍼스펙티브 CEO는 "최고의 경영은 공급업체들과 관계 개선을 하는 것이지만 경영 우선순위에서 밀리고 있다"며 "자동차 제조업체들은 공급업체들을 전화로 갑자기 부르거나 부품단가를 낮추는 등의 행동을 개선해 나가야한다"고 주장했다.

출처: <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2D&mid=shm&sid1=101&sid2=262&oid=009&aid=0003486695>

부패에 침묵하는 글로벌 방산업계

글로벌 방위산업체들이 '투명성 위기'에 직면했다는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전 세계 방산업체 대다수가 부패를 견제하는 프로그램 마련이 미비하다는 지적이 나온 것이다. 국제투명성기구(TI)가 전 세계 163개 방산업체들을 대상으로 반부패 프로그램의 투명성과 질적인 부분 등을 2년 동안 평가한 결과 3분의 2 가량이 관련 프로그램이 없거나 극히 적었던 것으로 나타났다고 영국 일간 파이낸셜타임스(FT)가 4월 26일 보도했다. 이 보고서에서는 특히 영국 무인전투기 개발의 주요 파트너사인 다쏘항공이 부패에 가장 취약한 기업으로 드러났다. 국제투명성기구는 이 중에서도 이른바 '오프셋(offset)' 계약의 투명성이 충분하지 못하다는 것을 놓고, 이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다는 점에 주목했다. 오프셋이란 방산업체가 정부로부터 계약을 수주하면서 정부가 요구하는 방위산업과 연관되지 않은 다른 계약을 맺는 것이다. 국제투명성기구는 각국

정부에 계약을 맺는 기업들로 하여금 반부패(규제) 장치를 마련해 시행하도록 할 것과, 이를 공개할 것을 요구했다. FT는 각국의 뇌물 수수 및 부패에 대한 규제와 강력한 사법권 행사가 효과를 보고 있지만 지난 2012년 이후 이들 기업들의 투명성이나 반부패 프로그램이 개선된 것으로 조사된 기업은 33%에 불과했다고 지적했다.

출처: http://news.heraldcorp.com/view.php?ud=20150427000706&md=20150427114439_BL

브라질 페트로브라스, 비리 파장에 작년 18조원 손실

브라질 국영 석유기업 페트로브라스의 비리 스캔들 파장에 브라질 경제도 불안이 지속되고 있다. 비리로 인해 페트로브라스가 입은 손실 규모만도 약 170억 달러(약 18조 4,179억원)에 이른다고 월스트리트저널(WSJ)이 보도했다. 페트로브라스는 감사 보고서를 통해 뇌물 제공 혐의로 인해 주가가 타격을 입으면서 62억 헤알(약 2조 2,322억원)의 자산 손실이 발생했다고 밝혔다. 여기에 재무제표상 자산가치가 과평가 됐다는 진단에 446억 헤알(약 16조 444억원)의 감손비용이 발생했다. 이 같은 결과로 작년 4분기 페트로브라스는 266억 헤알(약 9조 5,690억원)의 순손실을 입게 되었다. 브라질 연방 당국은 작년년부터 페트로브라스의 하청업체들이 페트로브라스로부터 대형 프로젝트를 수주하는 과정에서 비용을 과다하게 책정하도록 공모한 혐의에 대해 조사를 진행 중이다. 이로 인해 발생한 수익 중 일부는 뇌물 및 불법 정치 기부금의 형태로 전 페트로브라스 임원 및 정치인에게 제공된 것으로 알려졌다. 페트로브라스의 비리 여파는 브라질 경제 전체에도 악재가 되고 있다. IMF는 이달 발표한 분기 세계경제전망(WEO) 보고서에서 올해 브라질 GDP(국내총생산)가 -1%의 성장률을 기록할 것으로 내다봤다. 지난 1월 내놓은 0.3% 성장 전망에서 크게 하향 조정된 것이다.

출처: <http://www.mt.co.kr/view/mtview.php?type=1&no=2015042313105258629&outlink=1>

행사 이모저모

행사 이모저모

◎ 행사 브리핑

「건전한 대관(對官) 문화 조성」 토론회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이하 「청탁금지법」) 제정을 계기로 기업의 윤리경영 문화 확산을 위해 '건전한 대관(對官)문화 조성 토론회'가 6월 2일 한국철도시설공단 대회의장에서 개최되었다.

이번 '건전한 대관(對官)문화 조성 토론회'는 투명사회실천네트워크가 주최, 국민권익위원회, 한국철도시설공단, 중소기업중앙회, 한국공인회계사회 공동 주관으로 진행되었으며, 경제·직능단체 및 19개 공기업이 참여하였다.

이번 토론회는 「청탁금지법」의 제정 배경과 주요 내용에 대한 공유와 더불어 「청탁금지법」 시행에 따른 기업의 건전한 대관(對官)문화 확립 방안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되었다.

유한범 한국II 사무총장의 사회로 진행된 1부는 이성보 권익위원장의 인사말로 시작하여 박기찬 인하대 교수의 「청탁금지법」과 바람직한 대관(對官)문화」를 주제로 한 강연이 진행되었고, 이어서 1차 토론(좌장: 강성구 한국II 정책위원, 대표 토론: 허재우 권익위 청렴총괄과장, 유정민 한국공인회계사회 연구위원 등 5명)과 각 공기업 감사관 및 윤리경영 책임자 19인의 2차 토론이 진행되었으며, 이후 자유 토론의 시간도 이루어졌다.

토론회가 끝난 후 2부에서는 19개 공기업이 '기업윤리의 날 운영', '투명한 기업문화 확립', '윤리규범 마련·보완'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결의문을 채택하고, 참석자 전원이 구호 "대한민국의 미래, 청렴과 윤리"를 외치면서 윤리경영 실천 결의를 다지는 것으로 행사가 마무리 되었다.

권익위원장, 윤경 SM 포럼 청렴 특강



윤리경영이 21세기 경쟁력의 핵심요소라고 믿는 사람들의 다자간 모임인 '윤경SM포럼'이 6월 1일 국민권익위원회 이성보 위원장을 초청하여 '청탁금지법 시행과 윤리경영'을 주제로 청렴특강을 진행하였다.

플라자호텔에서 열린 이번 청렴특강은 「청탁금지법」 시행(16년 9월)을 앞두고 민간기업의 자율적인 윤리경영 문화 확산을 지원하기 위해 마련되었다.

이날 이성보 위원장은 윤경SM포럼 회원사 CEO와 임직원들을 대상으로 반부패 윤리경영의 중요성과 국제사회의 반부패라운드 강화 움직임에 대해 설명하였다.

또한, 이성보 위원장은 「청탁금지법」의 제정 배경과 주요내용을 소개한 후, 「청탁금지법」에 대한 기업 임직원 교육 강화와 윤리기준 마련의 필요성도 강조하였으며, 「청탁금지법」 등 우리 사회의 선진화된 부패예방시스템이 더 많은 성과를 거두기 위해서는 사회 지도층의 솔선수범과 함께 기업, 시민단체 등 사회 각계각층의 적극적인 참여가 필요하다고 역설하였다.

글로벌 리포트

이번 호 윤리경영 리포트에서는 지난 호에 이어 ‘미국의 윤리경영 관련 제도와 정책’을 소개하고자 한다.

미국은 윤리적인 기업에게는 민.형사상 인센티브를 주고, 그렇지 않은 기업의 민.형사 사건에 대해서는 가장 처벌하는 내용의 연방판결지침(FSG Federal Sentencing Guideline), NYSE(뉴욕증권거래소) 상장사 윤리강령 의무화, 美국무부의 우수 윤리경영기업 시상 등 미국 기업들이 윤리경영에 적극적으로 나서게 하는 제도적 장치를 갖추고 있다. 이러한 제도적 뒷받침과 윤리경영에 대한 사회적 관심을 통해 미국 내의 사회책임투자가 점점 더 증가하고 있으며, 이러한 사회책임투자 증가는 미국 기업들의 윤리경영에 대한 노력으로 이어지고 있다.

◎ 연방판결지침(FSG, Federal Sentencing Guideline)

1980년대 들어서도 군수산업과 금융산업의 부패 스캔들이 계속되자 미국정부는 기업윤리를 법으로 강제한다는 재계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1991년 “연방판결지침”을 확정했다. 연방판결지침은 윤리경영시스템을 갖추고 있는 기업의 경우, 연방법을 위반해도 법원이 면책하거나 징계 수준을 감면해주지만 반대의 경우에는 중과할 수 있는 법안으로, 전형적인 “당근과 채찍” 접근방법이다. 즉 범죄 행위로 기소된 기업들이 사건 발생 이전에 얼마나 효과적인 방지프로그램을 갖고 있었는가를 기준으로 판결한다는 취지이다. 연방판결지침은 다음의 7가지의 요건을 규정하고 있다.

<연방판결지침 7가지 요건>

1. 기업의 필요에 맞추어 준법 기준 및 절차를 확립할 것
2. 준법 프로그램을 감시할 고급 인력을 선임할 것
3. 불법을 저지를 성향이 있는 임직원에게 재량적인 권한을 위양하지 않도록 주의할 것
4. 준법 프로그램의 기준 및 절차에 대해 출판물과 교육을 통해 훈련할 것
5. 준법 프로그램의 실효성을 위한 조치 및 관련 제도를 구비할 것
6. 적절하고 일관된 규율을 통해 준법 프로그램을 실행할 것
7. 준법 프로그램의 개선을 통해 각종 위반사항에 대응할 것

실제로 미국 정부는 연방판결지침에 따라 1996년 일본 다이와은행에 3억 4천만 달러의 벌금을 부과했다. 미국 법원은 다이와은행이 금융기관 위험관리와 법률준수를 위한 내부 메커니즘을 구축할 의무가 있으나 이를 갖추지 못했다는 점을 주목하여 연방법 사상 가장 높은 벌금을 부과했다. 이 사건 이후 연방판결지침의 실효성에 대한 의심이 사라지고 미국기업들은 서둘러 윤리경영 시스템을 정비하기 시작했다.

반면 1996년 델라웨어주 법원은 사원들의 감독부재로 보험사기사건에 휘말려 기소된 케어마크사(Caremark International Inc.)의 이사진에게 경영책임을 묻는 주주대표소송에서 무죄를 선고했다. 비록 2억 5천만 달러의 벌금이 부과되기는 했지만, 이 회사가 오래 전부터 윤리경영을 실천하기 위한 제도를 마련하고 성실히 운영하고 있었다는 점에 비추어 경영진의 책임을 경감해 준 것이다. 이 사건은 준법 프로그램 또는 윤리경영의 실행 및 감독이 경영진의 충실의무에 포함된다는 점을 분명히 함으로써 이후 윤리경영 확산에 크게 기여했다.

◎ 미국의 사회적책임투자(SRI, Socially Responsible Investment)

SRI는 1920년대 미국의 감리교회가 투자에 윤리적인 원칙을 접목해 주류와 담배, 도박 등 '죄악주식(sin stock)'에는 투자하지 않기로 한데서 출발했다. 1928년 개설된 '파이오니어 펀드(Pioneer Fund)'는 죄악주식을 배제한 최초의 펀드라고 할 수 있다. 그 이후 1960년대 공익성 강조, 1970년대 반인종차별을 거쳐 1980년대 경제적, 사회적, 환경적, 윤리적 책임 등 다양한 측면을 투자에 고려하게 되었다. 2000년대에 들어서는 적극적으로 경영에 참여하고 주주권한을 행사하는 펀드가 출현했다. 기업의 지속가능경영과 관련된 리스크를 투자결정에 반영하는 SRI의 중요성이 강조되면서 미국 내에서 SRI의 규모가 점점 커지고 있다. 미국 내 SRI의 규모는 2012년 3조 7,400억 달러였지만, 2014년에는 6조 5,700억 달러를 기록하여 2년간 76%가 넘는 증가세를 보였다.

<사회책임투자(SRI) 란?>

- SRI는 기본적으로 투자대상을 선정할 때 기업의 재무적 요소뿐만 아니라 사회적 책임과 같은 중장기적인 비재무적 요소를 함께 고려하는 것을 말한다. 비재무적인 요소로는 일반적으로 환경, 사회, 기업지배구조를 들 수 있다. 즉, 생산, 판매, 유통 및 폐기에 걸친 전 단계에서 환경을 고려하고, 종업원, 지역주민, 협력업체, 그리고 경쟁업체와의 관계에서 공정한 원칙을 유지하며, 지배구조면에서는 이사회를 통한 경영정책 수립 등 투명한 경영을 추구하는가를 투자의 기준으로 삼는 것이라고 할 수 있다.

SRI펀드(사회책임투자펀드)규모의 성장은 미국기업들의 CSR을 촉진시키는 외부적 요인이 되었다. SRI펀드들은 환경, 사회, 기업지배구조에 대한 평가가 좋은 기업에 투자한다는 원칙을 갖고 있다. 미국에서 가장 큰 규모의 공적 연금을 운영하는 캘리포니아공무원연금(CalPERS, 캘퍼스)은 2002년 투자지침으로 인권정책을 채택한 바 있다. 따라서 미국 기업들은 이 펀드들의 자금을 유치하기 위해 환경, 사회, 지배구조 등 비재무적 요소의 개선을 위한 노력을 기울이게 되었다. 이러한 SRI펀드들의 투자 대상인 착한 기업의 경우 환경 및 사회, 기업지배구조에 따른 리스크가 낮음으로 인해 더 안정적이고 더 높은 수익률을 올리기 때문에 펀드규모 성장의 요인이 되었다. 또한 미국시장에서 SRI펀드가 빠른 속도로 증가한 것은 캘리포니아공무원연금 등 공적 연기금이 주식투자에서 수익성 이외에 공익성을 강조한 결과로 볼 수 있다. 공적 연기금의 SRI투자 규모는 전체 SRI펀드의 약 52.8%(2012년 기준)를 차지하고 있으며, SRI펀드의 규모는 매년 빠른 속도로 증가하는 추세를 보이고 있다. 미국의 2012년 SRI펀드의 규모는 333개 펀드 6,410억 달러였지만, 2014년에는 456개 펀드 1조 9,250억 달러에 달해 2년 사이에 금액기준 세배가 넘는 규모로 성장하여 세계 최대 규모를 자랑하고 있다. SRI펀드는 비재무정보의 제공범위의 확대를 주장하면서 회사에 각종 사회적 이슈를 담은 주주제안을 제출하는 등 적극적 기관투자자 행동을 실현하고 있다.

<미국의 SRI 펀드 사례>

Parnassus Small-Cap : 미국 내 자본규모가 3백만 달러에 못 미치는 소규모 기업을 대상으로 투자하는 펀드이다. Parnassus Investments(PI)가 운용하고 있으며, 이 업체의 투자철학은 매력적인 가격으로 착한 기업에 투자하는 것이다. PI가 운용하고 있는 대부분의 펀드들은 주류업체, 담배업체, 방산업체, 도박업체, 원자력발전을 통해 전기를 생산하는 전력업체들을 투자대상에서 제외하고 있다. PI의 투자팀은 투자대상기업의 환경, 사회, 지배구조와 관련한 외부정보를 입수한 후 이를 투자분석데이터로 사용하여 투자여부 및 규모를 결정한다.

◎ NYSE 상장사의 기업윤리강령 의무화

엔론, 월드컴 등 분식회계 스캔들로 홍역을 겪은 미국에서는 2001년부터 뉴욕증권거래소(NYSE) 상장기업들에게 윤리강령 제정과 그 실천을 의무화하고 있으며, 상장기업들이 윤리강령을 제정하게 함으로써 이사회와 경영진들이 사내외의 윤리적 문제에 관심을 더 가지게 하고 있다. 또한 이러한 윤리적 이슈를 다루는 가이드라인을 제공하고, 기업들이 사내 보고메커니즘을 마련하게 하여 이를 통해 기업들의 신뢰성과 정직성이 증진되도록 한다. 각 상장기업들은 윤리강령 내용을 기업 스스로 결정하지만, 몇 가지 중요한 사항은 의무적으로 윤리강령에 포함시켜야 한다.

<NYSE 상장기업의 윤리강령 의무 포함 사항>

- 임직원의 이해상충 방지 정책 및 잠재적 이해상충 상황 해결
- 임직원이 기업을 이용하여 사익을 챙기는 행위 방지
- 고객 및 기업의 비밀 보호
- 고객 및 공급업체와의 공정한 거래
- 기업 자산 보호 및 합법적인 사용
- 법·규범·규칙의 자율준수
- 불법 및 비윤리적 행위에 대한 보고 장려

◎ 미 국무부 Award for Corporate Excellence(ACE)

미국 국무부는 Award for Corporate Excellence(ACE)를 선정하여 글로벌 CSR 우수기업을 시상하고 있다. 이 상은 미국기업이 국내 및 해외에서 인류와 환경을 위한 기업활동을 펼치도록 장려하고 미국기업이 국제사회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음을 보여주어, 미국기업의 윤리경영에 대한 이미지를 공고히 하기 위해 제정되었다. 1999년부터 매년 연말에 해외에서 우수 CSR 미국 기업을 중소기업과 다국적 기업 분야로 나누어 선정하고 있으며, 전 세계 미국 재외공관장이 후보기업을 지명하면 선정위원회(Principals' Award Selection Committee)의 심사를 거쳐 최종 선정한다. 선정위원회에는 경제, 에너지, 농업 부문 부차관과 국제문제, 공공외교 및 대외홍보 부차관 외에 다양한 분야의 차관보, 국제개발처(USAID), 해외민간투자공사(OPIC), 밀레니엄 챌린지 협회(MCC), 상무부 고위급 관리들이 참여한다.

<2014년 Award for Corporate Excellence 수상 기업>

니카라과에서 기업활동을 하는 대나무 재배 및 가공업체인 EcoPlanet Bamboo Group은 지력이 다한 목초지를 재생하고, 기업 소유의 플랜테이션 중 20%를 야생동물보호지역으로 지정하여 생물의 다양성 보존에 기여하고 지속 가능한 개발의 발전에 일조했다. 또한 장애를 가진 지역주민을 고용하고 여성을 관리직에 임명하여 취약계층을 돕고 있다.

몽골에서 중장비 판매사업을 하는 업체인 Wagner Asia Equipment, LLC는 몽골의 지역 및 중앙정부와 협력하여 조림사업, 학생들을 대상으로 한 환경관련 워크숍, 지역사회를 위한 정원 건설, 쓰레기매립지 재생사업 등 환경을 보호하기 위한 활동을 펼쳤다. 또한 장애를 가진 지역주민을 고용하고, 직원들에게 의료혜택과 주거지 마련을 위한 자금 대출을 제공했다.

Coca-Cola Company는 필리핀의 태풍 '하이옌'으로 인한 피해를 복구·구호하는데 일조했다. 또한 필리핀 여러 지역에서 식수의 수질개선을 위한 사업을 펼쳤고, 지역사회에 수자원 보존을 위한 교육을 제공했다. 또한 필리핀의 교육부와 파트너십을 맺고 6만여 명 이상의 소외아동을 위해 초등교육을 제공했다.

*참고

기업윤리의 딜레마 : 사례와 해법, 대한상공회의소

주요 국제기구 및 주요국의 "기업의 사회적 책임활동(CSR)" 국가전략에 대한 분석, 송유철

<http://www.mt.co.kr/view/mtview.php?type=1&no=2007033017141007094&outlink=1>

http://nysemanual.nyse.com/lcm/sections/lcm-sections/chp_1_4/default.asp

<http://www.zacks.com/stock/news/131830/top-ranked-socially-responsible-mutual-funds>

<http://www.state.gov/e/eb/ace/2014/index.htm>

독자에게 물었습니다.

독자에게 물었습니다

- Q1. 청탁금지법에 대해 기대하는 점이 있다면?
- Q2. 청탁금지법 시행시 더 보완해야 할 내용이나 바라는 점은?

◎ 위생용품 제조업체 J과장

- A1 청탁금지법이 갑자기 국가 전반에 깔려있는 부정부패를 해결하는 특약은 되지 못한다 하더라도 온 국민이 부정부패에 대한 거부감을 가지고 보다 정직하고 윤리적으로 사는 방법에 관심을 가질 수 있게 되는 것만으로도 충분한 효과가 있을 것이다.
- A2 청탁금지법은 포괄적이고 일반적인 내용으로 구성되어 있으므로, 공직자 행동강령 규정처럼 구체적이고, 교통법규처럼 우리 모두가 실천 가능하도록 좀 더 현실적으로 보완할 필요가 있다.

◎ 자동차 생산업체 P차장

- A1 부정부패가 사라지게 되고 국가경쟁력이 올라갈 것으로 기대된다.
- A2 뇌물을 수수할 경우 징벌적 배상금액 상향조정과 고위 공직자의 경우 재취업에 대한 제한 강화가 필요하다.

◎ 관광·레저업체 K부장

- A1 국회를 통과한 것만으로도 기적 같은 일이다. 하지만 반대하는 구성원들도 있으므로 계속 지켜봐야 한다.
- A2 원안대로 이해충돌방지 부분도 추진되어야 하고, 공직자뿐만 아니라 기업 구성원에게도 엄격한 기준을 적용해야 사회 전체적으로 청렴 문화를 조성하는데 기여할 수 있을 것이다.

◎ 에너지 제조·공급업체 H차장

- A1 그 동안 우리 사회에 관행화되어 온 각종 청탁과 비리에 엄중히 대응하여 사회적 의식을 한 단계 높임은 물론, '연줄'이나 '청탁'이 아닌, 공정한 경쟁을 통해 성과와 인정을 받을 수 있는 '희망이 있는 사회'로 나아가는데 기여할 것이라 생각한다.
- A2 긴 시간 동안 많은 논의를 거쳐 힘들게 제정된 만큼, 법 제정 취지에 맞게 실질적인 효과를 얻을 수 있도록 잘 실행 되어야 할 것이다.

◎ 금융서비스업체 L과장

- A1 잘못된 관행과 접대문화에 대한 의식을 바꾸고자하는 의지에서 이 법이 시작되었다는 데 우선적인 의미를 두고 싶다. 첫 술에 배가 부를 수는 없는 것처럼, 앞으로 청렴사회를 향해 발전하는 국민의식과 제도개혁을 기대해 본다.
- A2 청탁금지법의 목적이 공직자의 공정한 직무수행 보장과 공공기관에 대한 국민의 신뢰 확보이므로, 청탁에 관해서는 어떤 공직자든 예외 없이 적용되어야 한다고 생각한다.

윤리경영 One Point Lesson

Q. 청탁금지법의 주요내용은 무엇이고 이 법 시행으로 우리 사회에 어떤 효과가 있을까요?

A. 2015년 3월 27일 제정된 청탁금지법은 2012년 국민권익위원회가 공직사회 기강 확립을 위해 추진한 법안으로, 정확한 명칭은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입니다.

청탁금지법에 따라 앞으로 공직자뿐 아니라 기자 등 언론사 종사자, 사립학교와 유치원의 임직원, 사학재단 이사장과 이사는 직무 관련성이나 대가성에 상관없이 본인이나 배우자가 100만 원을 넘는 금품 또는 향응을 받으면 무조건 형사처벌을 받게 됩니다. 구체적으로 법안 대상자들이 1회 100만 원(연 300만 원)을 초과하는 금품을 수수하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5배 이하 벌금의 형사처벌을 받게 됩니다. 다만, 100만 원 이하의 금품을 수수했을 경우에는 직무 관련성이 있을 때에만 금품가액의 2배~5배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했는데, 이 경우에도 한 명에게 연 300만 원이 넘는 금품을 수수하면 형사처벌이 가능합니다. 가족의 경우 배우자가 공직자 직무와 관련해 금품을 받을 경우에만 처벌 대상으로 규정하고 있고, 액수 적용은 공직자의 경우와 동일하지만 이 경우에도 처벌 대상은 가족이 아니라 공직자 본인입니다. 또한, 공직자가 직무와 관련해 배우자가 100만 원이 넘는 금품을 받은 사실을 알고도 신고하지 않으면 처벌받게 됩니다.

아울러 공직자등이 법에서 규정한 15가지 유형(인·허가, 처벌 감경, 인사·계약, 직무상 비밀 누설, 평가, 감사·단속, 징병검사 등)의 부정청탁을 받아 직무를 수행할 경우 형사처벌을 받게 됩니다. 다만, 공개적으로 공직자등에게 특정행위를 요구하거나, 정당과 시민단체 등이 공익의 목적으로 의견 제안 및 건의 등 7개 예외사유에 포함되면 부정청탁으로 처벌받지 않습니다.

이러한 청탁금지법이 본격적으로 시행되면 공직자를 둘러싼 청탁과 금품수수관행이 사라져 공직 부패를 근절하는 것은 물론, 선진국 수준의 부패 예방 시스템을 구축함으로써 우리나라의 청렴 수준을 획기적으로 개선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참고

네이버 지식백과,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시사상식사전, 박문각)

http://www.acrc.go.kr/acrc/board.do?command=searchDetail&menuId=05060319&method=searchDetailViewInc&boardNum=48971&currPageNo=1&confid=128&conConfid=128&conTabId=0&conSearchCol=BOARD_TITLE&conSearchSort=A.BOARD_REG_DATE+DESC%2C+BOARD_NUM+DESC

이달의 책

이달의 책

평판사회 - 땅콩회항 이후, 기업경영은 어떻게 달라져야 하는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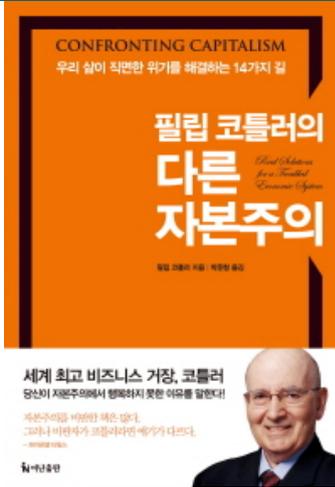
저자: 김봉수 외
출판: 알에이치코리아
출판일: 2015. 5. 7
정가: 15,000

2014년 12월 5일, 대한항공 전 부사장이 땅콩 제공 서비스를 문제 삼으며 이륙 준비 중인 비행기를 회항시킨 사건이 발생했다. 하지만 대한항공 측은 제대로 된 사고는커녕 사건을 은폐시키기에 급급했고, 결국 국민과 여론의 뭇매를 맞고, 법의 심판을 받게 되었다. 『평판 사회』는 이러한 기업의 지배구조, 사회적 갈등관계 등 다양한 문제가 폭발적으로 표출된 '땅콩회항'이라는 사건을 통해 우리 기업이 어떻게 앞으로 나아갈 것인가를 고민한다.

우선 땅콩회항을 오너리스크(Owner Risk)의 관점에서 들여다보고, 기업이 배워야 할 여론전략을 다룬다. 이어 땅콩회항에서 누가 먼저 사과를 해야 했는지, 누구에게 먼저 해야 했는지를 짚어보고, 위기관리의 과정을 면밀히 추적하며 위기관리 리더십과 위기관리 시스템 모델을 소개한다. 땅콩회항 이후 대한항공의 주가, 브랜드 가치 등 기업 지표도 함께 점검한다. 끝으로 우리 기업들이 위기 전략에 관한 기존의 관성을 버려야 한다고 말하고, 위기관리를 위해 필요한 개념들을 소개한다.

[인터넷 교보문고 제공]

필립 코틀러의 다른 자본주의 - 우리 삶이 직면한 위기를 해결하는 14가지 길



저자: 필립 코틀러
출판: 더난출판사
출판일: 2015. 4. 25
정가: 15,000

'마케팅의 아버지'라 불리는 세계적인 마케팅의 대가, 필립 코틀러는 기업 경영에서 생소했던 마케팅이라는 개념을 널리 확산시킨 인물이다. 수십 년 동안 자본주의의 최전선에 섰던 그가 『필립 코틀러의 다른 자본주의』에서 자본주의가 안고 있는 문제점을 가감 없이, 날카롭게 짚어냈다. 누구나 알기 쉽게 자본주의를 현실의 눈높이에서 설명하고, 나아갈 길을 보여준다.

이 책은 소득 불평등을 비롯하여 반복되는 빈곤, 최저임금, 일자리문제, 높은 부채 부담, 공공정책에서 부자들의 균형에 맞지 않는 혜택, 너무 비싼 환경 비용, 경기 변화가 심한 경제 사이클 등 자본주의를 비틀거리게 하는 14가지 모순을 자세히 다룬다. 뿐만 아니라 보수나 진보의 진영 논리에 휩쓸리지 않고 문제를 직시해 현실적으로 가장 유력한 해법을 내놓는다.

[인터넷 교보문고 제공]

즐거운 윤리

기업 윤리주간을 맞이하여
기업들이 '윤리의 날'을
어떻게 운영하고 있는지
아래를 알아보아요?

'기업윤리의 날'

저희 회사는
포스터 부착과 같이 윤리의식과
윤리실천을 되새길 수 있는
캠페인을 펼치고 있습니다.

저희는 뉴스레터를 직원들
이메일로 발송하고 있습니다.

윤리 실천과
행동강령을
지킬 것을
선서합니다.

퀴즈대회를 열어
직원들의 참여를
유도하고 있습니다.

골든벨

임직원
행동강령

청렴관련
시사상식

윤리경영
실천규정

명사를 초청하여
임직원
윤리의식 함양에
힘쓰고 있습니다.

저희는 윤리경영
총괄자인 CEO가
윤리경영 메시지를
전달하기도 합니다.

전 임직원에게 청렴문자를
발송하고 있습니다.

기업들이 다양한 행사를
통해 임직원의
윤리의식 제고에
힘쓰고 있군요.
이런 분위기가 확산되어
윤리적인 기업문화가
정착되기를 기대해 봅니다.